

2018년 서울시 7급 B형 국어 해설

제공 : 유두선

1. ③ 푸르다, 노르다 -> 여 불규칙

하다 -> 여 불규칙으로 어미가 바뀌므로 (다)에 해당함

<오답풀이>

① 눕다 - ㅂ 불규칙으로 어간 ㅂ이 '우'로 바뀌므로 (나)에 해당한다.

② 씻다 - 규칙활용 (나)와 관계없다.

④ 좋다 - 규칙활용 (라)와 관계없다.

정답 ③

2. ② ㄴ -> '쓰이어'는 씩어, 쓰여로 축약 ㄷ -> '띄어'로 바르게 축약

<오답풀이>

ㄱ. 되었다 -> '뒀다'로 축약

ㄴ. 적지 않은 -> '적잖은'으로 축약

ㄹ. 변변하지 않은 -> '변변찮은'으로 축약

정답 ②

3. 천상병의 <귀천>에서 출제되었다.

③ '새벽빛, 이슬, 노을빛'은 모두 소멸의 이미지로 초월적 세계와는 관계없다.

정답 ③

4. ㄱ과 ㄴ은 양순음에 대한 바른 설명이다.

<오답풀이>

ㄴ. 양순음은 파열음과 비음에 있다.

ㄷ. 'ㄹ'은 양순음이면서도 비음이다.

정답 ③

5. ㉠ 추임새는 흥을 돋우어준다.

㉡은 소리에 해당하고

㉢ 창이 아니고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은 아니리에 해당

㉣ 몸짓은 '발림'에 해당

정답 ④

6. ② '굴다'는 부사어를 반드시 취한다. 즉 '비겁하게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 부사어

<오답풀이>

①, ③, ④는 생략해도 말이 되므로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정답 ②

7. ①은 모두 'ㄹ'이 'ㄴ'으로 비음화

<오답풀이>

② '임진란, 공권력'은 'ㄴ'으로 비음화 광한루는 [광할루]로 설측음화

③ 입원료 협력은 비음화, 대관령은 [대괄령]으로 설측음화

④ 동원령, 구근류는 비음화 난로는 [날로]로 설측음화

* 초성의 ㄹ(설전음)이 종성의 ㄹ(설측음), ㄹㄹ(설측음)으로 변하면 설측음화 현상이다.

정답 ①

8. (가)는 이현보의 시조 (나)는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④ (다)에서 종장은 내가 배에 타고 가니까 앞에 산이 지나가고 뒤에 있는 산이 보인다는 표현으로 역동적 진행감을 보인다.

<오답풀이>

① (가), (나) 모두 양반의 노래

② (가)는 어부 생활보다 나라 걱정을 노래하고 있다.

③ (가)는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정답 ④

9. ③ 상태를 부정하고 ①, ②, ④는 행위를 부정하는 보조용언이다.

정답 ③

10. ③ '율곡로'는 행정구역 단위로 붙임표가 빠졌다. Yulgok-ro가 바른 표기

정답 ③

11. ① '도리어'의 준말은 '되레'로 표기한다.

정답 ①

12. '곤혹스럽다'는 ㅂ불규칙으로 'ㅂ'이 '오/우'로 변한다 '곤혹스러운'이 바른 표기다.

정답 ①

13. 글의 중간에 손 도구, 상자, 쓰레기더미, 벽돌, 속옷 무더기, 도살된 동물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④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답 ④

14. ④ 地 境 - 경계를 뜻함

정답 ④

15. ① '할 만큼'에서 '만큼'은 관형어 뒤에 있으니까 의존명사 '~오리만큼'은 '~ㄹ 정도로'의 의미로 쓰이는 어미이다.

정답 ①

16. ㄴ. 구지가(가락국)

<오답풀이>

ㄱ. 만전춘별사(고려)

ㄴ. 월산대군(조선초 성종의 형)

ㄷ. 정철(임란전후)

정답 ④

17. ③ '겨우, 아주, 바로' 등은 부사이지만 체언 앞에 쓸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관형사는 체언만을 수식한다.

② 관형격조사가 생략된 형태일 때 명사가 다른 명사 수식

④ 부사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있다.

정답 ③

18. ㉠ '앞에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라는 말에서 ㉠에는 '갈등'이 들어가고 '정치적 결정을 위한'이란 수식어를 볼 때 ㉡에는 '성과'보다 의제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 ③

19. ② '는'은 '차이' 대조 의미를 지니는 보조사이다. 주격조사는 아니다.

정답 ②

20. ② '임기응변'을 그때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①, ③, ④와는 다르다.

정답 ②

2018 서울시 7급 총평

서울시 7급은 문법 12문항, 문학 4문항 독해 2문항 한자 2문항이 출제되었다. 고전문법은 나오지 않았으나 고전시가가 출제되었다. 문법은 쉬운 듯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문제와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체계적으로 원리 학습을 한 학생들은 쉽게 적응하였을 것이다.